

1

세미나 배경 및 목적

-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높은 물가에 대응한 정부의 건전재정 방향과 고금리 상황의 지속, 그리고 대외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.
- 올해 들어서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, 동행지표인 건설기성과 건설투자는 증가하는 등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선이 가중됨.
-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 등 침체 분위기를 일신하는 지표가 나오는 한편 공급 선행지표 감소 및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지표가 혼재돼 2024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.
-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, 상반기까지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시장 외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, 공급자 금융 문제가 이어지는 등 시장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 반등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며, 시장의 회복 가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.
- 이에 연구원에서는 2024년 하반기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코자 함. 이를 통해 정책과 산업계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음.

2

세미나 개요

- 세미나명 : [2024년 건설·부동산 경기 전망] 세미나
- 일 시 : 2023. 11. 1(수), 14:00~16:30
- 장 소 :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

시간	내 용	비고
13:30 ~ 14:00 (30')	접수 및 등록	
14:00 ~ 14:10 (10')	개회사	이 충 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
14:10 ~ 14:50 (40')	주제발표	
14:10 ~ 14:30 (20')	[제1주제] 2024년 건설경기 전망	박 철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
14:30 ~ 14:50 (20')	[제2주제] 2024년 주택 · 부동산 경기 전망	김 성 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
14:50 ~ 15:10 (20')	Coffee Break	
15:10 ~ 16:30 (120')	종합토론(안)	
	○ 좌장 : -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(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)	
	○ 토론자(5~6인)_가나다순 - 국토교통부 1인 - 서찬동 매일경제 부동산부 선임기자 -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- 유 현 전무 남양건설 - 최태섭 이사 신동아건설 -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	
	질의응답	